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0호 【루계 제23242호】 주체99(2010)년 10월 17일 (일요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사 설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과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력사와 전통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는 전도양양한 혁명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통하여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떨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4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세대와 세기는 바뀌였으나 《ㅌ. ㄷ》의 기치는 오늘도 백전백승의 기치로 우리앞에 휘날리고있다.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는 조선로동당과 같이 장구한 기간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하여온 투쟁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창창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당은 없다.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며 21세기를 향도해나가는 백전백승의 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다.

지금으로부터 84년전 주체15(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것은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ㅌ. ㄷ〉의 결성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ㅌ. ㄷ》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추켜드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ㅌ. ㄷ》의 강령은 우리 당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ㅌ. 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ㅌ. 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 세대 혁명가들은 우리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성격과 면모에는 《ㅌ. ㄷ》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이번에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통하여 필승불패의 우리 당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은것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과 그 빛나는 계승의 력사가 있었기때문이다.

《ㅌ. ㄷ》전통의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ㅌ. ㄷ》에서 마련된 고귀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선군혁명의 로숙하고 세련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고 당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자주의 기치,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ㅌ. ㄷ》의 리념을 구현하는 과정에 마련된것이다.

위대한 수령이 혁명의 개척기에 창조한 전통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ㅌ. ㄷ》의 전통을 틀어쥐고 나가는 길에 우리 조국과 혁명의 천만년미래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는것, 이것이 《ㅌ. ㄷ》의 기치따라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80여년력사가 가르쳐주는 고귀한 진리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데서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당대표자회에서는 걸출한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희세의 선군령장,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였다. 이것은 《ㅌ. ㄷ》의 전통을 틀어쥐고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를 빛나게 계승하며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과시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ㅌ. ㄷ》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이 있고 우리 조국의 앞길에 강성번영의 휘황한 전도가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한 여기에 이번 당대표자회의 거대한 력사적의의가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향도의 당을 따라 《ㅌ. ㄷ》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 우리 조국과 혁명을 백승에로 이끄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ㅌ. ㄷ》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빛내여나가야 한다.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념원과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

《ㅌ. ㄷ》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80여성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에 의하여 백승을 떨쳐온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하고 우리 혁명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향도적기치이며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당과 혁명무력, 공화국정권은 주체혁명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을 따라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수령님식대로 투쟁해나갈 때 《ㅌ. ㄷ》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빛나게 완성되게 될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당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였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당의 강령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여 이 땅우에 수령님의 념원이 활짝 꽃펴나도록 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전통의 위대한 계승의 력사를 깊이 체득하고 끝없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빛내여나가야 한다.

주체혁명은 그 개척기에 마련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발전되는 위대한 혁명이다. 《ㅌ. ㄷ》에 뿌리를 둔 우리 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우리 인민의 모든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장구한 투쟁속에서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이 강하며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왔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은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실 때에만 빛나게 계승발전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견지명의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정치군사적담보와 경제적토대가 다 마련되였다. 10월의 대축전장에 터져오른 천만군민의 환호성은 희세의 선군령장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더욱 휘황찬란한 우리 조국과 혁명의 전도에 대한 신심과 락관의 분출이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혁명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승을 떨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선군정치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ㅌ. ㄷ》의 열혈혁명가들이 태양을 따르는 위성이 되여 혁명의 준엄한 길을 끝까지 헤쳐갔던것처럼 위대한 향도의 당을 따라서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가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위대한 계승의 력사를 깊이 체득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은 《ㅌ. ㄷ》가 내세운 부강조국건설리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일떠세우시고 최대의 애국유산으로 물려주신 주체조선, 선군조선을 륭성번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으로 시대의 상상봉우에 올려세울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불면불휴의 강행군장정에 의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이 땅우에서는 세기적인 기적과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다. 현실은 강성대국의 승리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믿음을 더욱 억세게 하여주고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성과는 전적으로 우리 인민자신의 창조적투쟁, 오늘의 대고조진군속도에 달려있다. 모든 전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도처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사변들을 련이어 일으켜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부문에서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이미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록,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주체화, 현대화, 최첨단돌파전의 장엄한 포성을 높이 울려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초선들마다에서 높이 발휘되는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ㅌ. ㄷ》가 높이 추켜든 기발에는 반제자주정신이 맥박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않고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선군의 요구대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며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제국주의반동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오늘 《ㅌ. ㄷ》의 기치높이 위대한 승리와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여온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져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적참모부인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이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고 선군의 폭풍우속에서 다져진 필승불패의 일심단결과 군력, 강력한 자립경제가 있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21세기는 위대한 향도의 당을 따라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ㅌ. ㄷ》의 리념을 완전히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세기로 빛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 금 도 동 지

나는 당신이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내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리고 우리 당 최고지도기관이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따뜻한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로세대혁명가들에 의하여 마련된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가 대를 이어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형제적중국인민이 당신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과학적발전관을 관철하며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 정 일

주체99(2010)년 10월 16일 평양

로씨야 블라고웨쉔스크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조 결성

로씨야 블라고웨쉔스크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조 결성식이 9월 26일 아무르주에 있는 블라고웨쉔스크국립사범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철학협회 띤다지부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겐나지 아스따호브가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소조책임자로 아. 이. 돈첸꼬가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결성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김일성화전시회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기네 꼬나크리에서 4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전시회개막식에는 기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조직위원회, 기네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아브둘라이에 디알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김일성**화전시회가 개막된것은 기네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긍지와 영광으로 된다.

여러해전에 아프리카의 기네땅에 뿌리내린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오늘 기네뿐아니라 주변나라들에도 널리 보급되여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이 꽃이 오늘 행성을 물들이며 그처럼 커다란 매혹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단순히 꽃이 류달리 아름다와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주시대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인류의 진심어린 흠모의 표시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오늘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국경을 넘고 대륙과 대양을 넘어 온 세계에 보급되여 만민의 사랑을 받고있는것이다.

우리는 **김일성**화재배보급사업을 더 잘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메히꼬, 민주꽁고, 인도네시아, 타이, 체스꼬에서 집회, 도서, 사진전시회, 강연회, 영화감상회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의 65성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메히꼬인민사회당, 민주꽁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인도네시아 드위 미뜨라 뻐르까싸회사, 타이 난시관광 및 려행회사, 체스꼬 토피크 에네르고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강철의 대오 조선인민군》, 《강성대국의 불보라》가 상영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분출로서 조선로동당 력사에서 일대 정치적사변이다. 또한 그것은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들과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세계사적대경사이다.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민주꽁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대외관계담당 전국집행비서는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총비서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선군정치에 의해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자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체스꼬 토피크 에네르고회사 사장은 영화를 보고나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각하께서 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기쁨을 금할수 없다, 걸출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제낄것이라는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였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신념의 맹세 백두산정에 메아리친다.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년간 광물생산계획 넘쳐 수행

상농광산에서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상농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줄기찬 투쟁을 벌려 지난 10월 6일까지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로 하여 지금 온 나라는 활화산의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위대한 세기적변혁이 바야흐로 태동하는 격동적인 시대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이곳 일군들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새겨안고 년초부터 들끓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전투조직과 지휘를 인민군대식으로 패기있게 해나갔다.

광물증산을 위한 중요한 열쇠의 하나가 기술혁신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종업원들은 평행식속빼기발파방법을 연구도입하여 발파효률을 훨씬 높인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생산에 받아들였다.

신흥갱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의 대고조는 기술혁명의 대고조, 자력갱생의 대고조라는 옳바른 관점밑에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전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으며 교대당 수백t이상의 광물을 수송하면서 광물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봉화갱과 6.6갱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전차, 광차를 비롯한 설비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한편 예비전차, 예비광차를 마련하여 수만t의 광물을 운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산의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일본새로 륜환선운반갱도를 새로 건설하도록 하여 전차의 운반회수를 늘였으며 특히 당창건 65돐을 앞두고 45호, 55호채굴장에서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여 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가두녀성들도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격전장에 남편들과 함께 서있다는 자각을 안고 매일같이 힘있는 후방사업으로 전투원들을 고무해주어 광물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송창윤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존엄떨치는 조선로동당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4돐을 맞으며

자주의 기치따라 승리의 한길로!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참관자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65돐과 더불어 뜻깊게 맞이하는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4돐!

이날을 맞이한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존엄높은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자주시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다.

조국과 민족, 혁명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끓이시던 10대의 우리 수령님의 넋과 불타는 혁명열이 뜨겁게 맥박치는 타도제국주의동맹,

그것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신념과 의지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그 길우에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였으며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력한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일찌기 설한풍 몰아치는 압록강반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은 선진사상의 기치밑에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그리고 조선혁명을 잘하자면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과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다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직을 내오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화전에서 력사적인 회합을 가지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ㄷ》)을 결성하시였다.

연락도 없는 수수한 방에서 마침내 《ㅌ.ㄷ》를 결성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은 감격과 환희로 벅차오르시였다. 그이의 가슴속에는 조직을 무으시려고 여러해동안이나 수만리길을 걸으시며 사방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을 조직에 결속하신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사무쳐오시였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길에서 드디여 첫열매를 맺게 되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밝힌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제시하시였다.

《ㅌ.ㄷ》의 강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밝힌 혁명적강령이였으며 우리 인민을 참다운 혁명투쟁,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전투적기치였다.

10대의 시절에 그처럼 반제계급적립장이 투철하며 투쟁목적이 원대한 혁명조직을 결성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크나큰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ㅌ.ㄷ》의 결성으로 조선혁명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혁명과 민족해방운동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된 낡은 세대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ㅌ.ㄷ》의 강령은 우리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ㅌ.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은 우리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다름아닌 《ㅌ.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났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

정녕 그것은 절세의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원불멸할 력사적공적이다.

이렇듯 우리 수령님의 혁명투쟁은 그 시작부터가 비범하고 특출하였다.

땅속의 뿌리도 태양의 빛과 열이 없으면 잘못되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라는것을 밝혀주시고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전당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에는 《ㅌ.ㄷ》의 리념, 자주의 리념이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ㅌ.ㄷ》의 리념을 꽃피우시기 위해 불멸의 강성대국건설사를 수놓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에서 《ㅌ.ㄷ》를 결성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을 경건히 우러르고있다.

위대한 태양을 맞이한 기쁨과 감격으로 그들이 목청껏 터친 만세소리는 우리 당의 자랑찬 65년력사를 경축하는 장중한 축포소리로 되여 10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당기발에 새기신 숭고한 뜻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새날이 밝아왔다. 저 멀리 동녘하늘가에 타오르는 태양의 빛발이 만수대대기념비 항일혁명투쟁탑의 붉은 기폭에 새겨진 《타도제국주의》라는 글발을 금빛으로 더욱 숭엄히 물들이고있다.

탑에 새겨진 붉은 기폭을 바라볼수록 격정을 금할수 없다.

저 성스러운 《ㅌ.ㄷ》의 기치가 오늘은 마치와 낫과 붓을 새겨넣은 우리의 당기발로 힘차게 나붓기고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마치와 낫과 붓을 함께 새긴 우리 당의 기발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자주시대 혁명적당의 빛나는 상징이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단결의 기치, 승리의 기치이다.》

《ㅌ.ㄷ》의 기치와 더불어 빛나는 우리 당기발을 생각할 때면 언제인가 우리 당기발을 바라보시며 뜻깊은 말씀을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렷이 안겨온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당기발은 불바다를 헤치며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온 승리와 영광의 기발이며 혁명의 기발입니다, 우리 당기발의 력사는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혁명의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우리 당기발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가 그대로 비껴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기발의 력사적시원과 함께 붉은기철학을 우리 당기발에 새겨주시던 귀중한 가르치심이 오늘도 우리 가슴 세차게 두드린다.

우리의 붉은 당기에는 《ㅌ.ㄷ》로부터 뿌리내린 우리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수하시려는 백두산위인들의 무한대한 혁명적열정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미래에 대한 필승의 락관이 뜨겁게 스며있다.

어느해 여름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언덕에 잠시 오르시여 멀리 당중앙위원회청사 지붕우에서 노을빛을 안고 펄럭이는 우리 당기를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 당기가 얼마나 좋은가고, 세월은 류수와 같다더니 우리가 조선혁명의 기치를 든 때로부터 벌써 수십년세월이 흘렀다고 하시면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인민의 성실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한평생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였다. 피흘려 인민들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하였고 땀흘려 이 땅에 살기 좋은 인민의 세상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아직 《ㅌ.ㄷ》의 붉은 기앞에서 혁명과 인민앞에 다진 맹세를 다는 실현하지 못하였다. 아직은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도 앞에 놓여있고 인민들의 최고리상사회건설도 앞에 놓여있다.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스승인 인민들속에 들어가 부지런히 배우면서 쉬지 않고 일한다면 우리는 남먼저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올수 있다. …

《ㅌ.ㄷ》와 더불어 당기에 새기신 백두산위인들의 뜻은 이렇듯 숭고하고 고결하다.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그 붉은 기폭에는 《ㅌ.ㄷ》와 더불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온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력사가 숭엄히 어리여있다.

《ㅌ.ㄷ》에서 력사적뿌리가 내린 우리 당은 앞으로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그날을 향하여 성스러운 당기발을 영원히 휘날려갈것이다.

림정호

《ㅌ.ㄷ》와 더불어 빛날 불멸의 업적

일심단결의 전통

《ㅌ.ㄷ》의 기치 날리던 화전의 언덕에서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이 우리 수령님을 중심으로 이룩하였던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일심단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으로 빛나고있다.

그때 김혁, 차광수, 최창걸 등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삼천리강산을 밝게 비치는 새별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받들고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였으며 한별정신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였다.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내가 김혁, 차광수, 최창걸과 같은 사람들을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것은 그들이 나에 대한 노래를 짓고 나를 지도자로 내세워서가 아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민족이 그처럼 절절하게 바라면서도 실현할수 없었던 통일단결,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통일단결의 시원을 열어놓고 우리 혁명에서 령도자와 대중의 일심동체를 이룩한 통일단결의 새 력사를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기때문이라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첫째가는 공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를 핵으로 통일단결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넋은 오늘 우리 당이 일심단결이라고 부르는 통일단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으로 되였다고 감동깊이 쓰시였다.

동지애의 새 력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ㅌ.ㄷ》시절을 회고하시며 동지를 얻기 위한 자신의 투쟁은 화성의숙에서부터 첫발자국을 떼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ㅌ.ㄷ》의 결성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자랑이고 긍지인 동지애의 새 력사를 감동깊이 엮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모래밭에서 금싸래기를 고르듯 심혈을 바쳐 키우신 동지들이 그대로 《ㅌ.ㄷ》의 첫 성원들이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명의 동지를 얻기 위해 말그대로 천만자루의 품을 들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잡사상과 주의주장에 오염되지 않은 참다운 새 세대 혁명가들을 키울것을 결심하시고 화성의숙의 청년학생들속에서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ㅌ.ㄷ》의 결성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 한사람한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시며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혁명동지들을 수많이 묶어세우시였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시였다.

망국의 그 세월 갈길 몰라 방황하며 참된 투쟁의 길을 모색하던 그들을 한품에 안아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그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끝없이 고무추동한 고귀한 원천이였다.

본사기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생각할 때면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데 이어 그이를 모시고 당창건 65돐 경축행사들을 진행한 영광넘친 그 나날들의 감격과 환희가 지금도 나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고있다.

진정 천만의 대오를 하나의 숨결로 맥박치게 하는 충정의 순결체로 만들어 혁명과 건설에서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고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로 세기에 빛나는 고귀한 업적을 이룩해나가는 강철의 우리 당에 대한 매혹이 누구나의 가슴속에서 끝없이 분출되는 뜻깊은 10월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ㅌ.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땅속깊이 뿌리박은 나무가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것처럼 당도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야 어떤 환경속에서도 끄떡없으며 불패의 위력을 떨칠수 있다.

오늘 위대한 혁명적당, 강철의 당으로 존엄높은 우리 당의 위용은 《ㅌ.ㄷ》와 결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세상에는 수많은 당들이 있지만 우리 당처럼 《ㅌ.ㄷ》와 같은 전위조직을 뿌리로 하여 자라나고 강화발전된 생기발랄하고 전투력있는 당은 없다.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동지애가 낳은 《ㅌ.ㄷ》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 당이 세기를 이어 온 세상에 불패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수령님과 꼭같으신 희세의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으로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원로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이에 대해 생각할 때면 경애하는 그이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바쳐가시는 크나큰 로고가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지금도 올해 1월 평양밀가루가공공장과 룡성식료공장에 이어 8월에 훌륭히 기술개건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맛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잊을수 없다.

정녕 낮이나 밤이나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해주실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어버이장군님과 같으신 위인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으랴.

지금 우리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들을 보면 나와 뜻을 같이하는 동지라고 생각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인민의 충복답게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쳐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강화하며 일터를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꾸림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공장으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평양식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황인성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

오늘 우리 당은 높은 령도적권위와 전투적위력을 지니고 주체혁명을 새로운 승리의 한길로 향도해나가고있다. 수령의 당건설력사와 전통, 사상과 위업을 끝없이 빛내이며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존엄떨치는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면모가 있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력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71(1982)년 10월 17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력, 그 양양한 전도에 대하여 긍지높이 천명하고 당의 령도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힌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ㅌ.ㄷ〉의 결성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ㅌ.ㄷ》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이며 원형이다.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핵심골간은 일찌기 《ㅌ.ㄷ》에서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ㅌ.ㄷ》의 강령은 우리 당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ㅌ.ㄷ》의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지침으로 되였다. 《ㅌ.ㄷ》의 전통은 우리 당이 세기를 이어 백전백승을 떨칠수 있게 하는 만년재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ㅌ.ㄷ》의 결성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경험을 뚜렷이 밝히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로작에는 《ㅌ.ㄷ》의 전통을 우리 당과 혁명의 백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당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며 필승불패의 위력을 떨쳐왔다. 지난 세기 사회주의집권당들의 붕괴로 세계정치정세가 복잡다단할 때에도 우리 당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셔버렸다. 우리 당이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존엄높은 당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한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ㅌ.ㄷ》의 전통을 우리 당의 영원한 피줄기로 틀어쥐고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당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비상히 강화되였다. 지난 9월에 진행된 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고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한것은 《ㅌ.ㄷ》에서 력사적뿌리를 내린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우리 당은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는 혁명적당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자주는 《ㅌ.ㄷ》의 생명이였고 승리의 기치였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시대를 개척하여온 《ㅌ.ㄷ》열혈투사들의 신념과 의지는 그대로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초석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수십성상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대국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오늘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현시대 자주정치의 표본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는 나날 우리 당건설과 활동을 선군혁명위업수행을 위한데로 확고히 지향시키신것은 《ㅌ.ㄷ》의 반제자주적인 원칙과 립장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을 선군의 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고 이 땅우에 《ㅌ.ㄷ》가 목표로 내세웠던 자주적이며 강성번영하는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립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모든것을 우리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분석판단하고 자기의 신념과 결심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이 바로 조선로동당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주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나갈것이다.

우리 당은 《ㅌ.ㄷ》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불패의 전위대오이다.

단결은 당의 불패성의 상징이며 모든 승리의 원천이다.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지적인 단결,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고 밝히시였다.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일찌기 《ㅌ.ㄷ》에서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한별,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과 사상도 뜻도 운명도 함께 하는 혼연일체의 대오가 바로 《ㅌ.ㄷ》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의 필승불패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려는 철석의 의지, 이것이 《ㅌ.ㄷ》열혈투사들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풍모였고 일심단결의 초석이였다. 우리 당이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백전백승을 떨쳐올수 있은것은 수령중심의 통일단결의 시원을 열어놓은 혁명의 1세대들의 고귀한 전통을 꿋꿋이 이어왔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당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지닌 선군혁명의 참모부로 존엄떨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철통같이 뭉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가 바로 조선로동당이다.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만이 꽉 차넘치고 수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ㅌ.ㄷ》의 가장 숭고하고 열렬한 동지애는 그대로 우리 당의 혁명철학으로, 일심단결의 초석으로 되고있으며 혁명선렬들이 지녔던 한별옹위정신은 오늘 전체 당원들의 심장속에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으로 맥박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대고조진군의 선봉에서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세상을 들었다놓는 불멸의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 당은 《ㅌ.ㄷ》의 전통을 이어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조국의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전투적당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ㅌ.ㄷ》의 열혈투사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인민대중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와 대중령도방법은 《ㅌ.ㄷ》의 고유한 기풍이고 활동방식이였으며 그것은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근본바탕으로 되였다. 우리 당이 수십성상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은것은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투쟁한 《ㅌ.ㄷ》의 전통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 불패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ㅌ.ㄷ》성원들이 체질화하였던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은 그대로 우리 당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로 빛을 뿌리고 수령님께서 한평생 타고오신 인민행렬차는 오늘의 새 세기에도 우리 당의 애민헌신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달리고있다.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며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는 위대한 당,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고있는 어머니당, 이것이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다.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ㅌ.ㄷ》의 전통을 이어 인민의 리상사회,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만이 펼쳐놓을수 있는것이다.

당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혼연일체,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ㅌ.ㄷ》의 전통은 오늘도 래일도 더없이 귀중한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향도의 당을 따라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길이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김성룡

일심단결의 전통을 굳건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자

혼연일체의 위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강계시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 멀리 화전의 언덕에서 《ㅌ. ㄷ》를 결성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84돐이 되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의 뿌리이며 조선혁명의 시원인 《ㅌ. ㄷ》의 위대한 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당은 그 어떤 모진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령도자의 두리에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강철같은 일심단결이 이룩될수 있었다.

하기에 이날을 맞이한 강계시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를 뜨겁게 되새기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 수령, 자기 당을 믿고 그 두리에 뭉쳐 혁명을 하겠다는 높은 각오와 강의한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가장 공고한 단결의 사상적원천입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끝없는 격정과 환희속에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우리 당의 위대한 력사와 그 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활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지금 시의 여러곳에는 우리 당의 위대성과 당정책의 정당성, 생활력을 보여주는 수백점의 직관선전물들이 게시되여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더한층 돋구어주고있다.

대중을 교양하는데서 직관선전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시당위원회에서는 직관선전물의 내용을 《ㅌ. ㄷ》의 기치밑에 백전백승을 떨쳐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으로 일관시키는 한편 그 형식을 부단히 개선하여 직관선전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우리 당의 위대성선전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게 하고있다.

김원호, 백승철, 김광일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 나가 대중속에 《ㅌ. ㄷ》에서 시작된 일심단결의 위대한 전통은 우리 당의 영원한 필승불패의 기치라는데 대하여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이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천만군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된데 대하여 적극 해설선전하고있다.

특히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 어떤 모진 광풍과 시련도 꿋꿋이 이겨내며 사회주의를 수호하였던 사실자료들도 결부하여 실감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이들모두가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도 승리자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서선전과 강연선전대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출판물보급원들로 일심단결을 주제로 한 도서선전활동을 기동성있게 벌려나가도록 하는것과 함께 직외강연강사들로 강연선전대도 조직하여 시안의 령도업적단위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집중강연선전의 포성이 힘차게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시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이야말로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 당, 대중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한 혁명적당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ㅌ. ㄷ》에서 시작된 일심단결의 전통을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시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당정책의 정당성, 그 생활력을 내용으로 하는 문답식학습경연을 모든 당조직들에서 진행하게 하고있으며 방송선전차를 통한 교양사업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ㅌ. ㄷ》의 위대한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시당위원회의 사상교양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속에 강계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결사관철의 기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강계기초식품공장, 강계편직공장, 강계은하피복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령도업적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투철한 신념과 드센 배짱을 안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계속 높이 울려가고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청년공원유희장이 훌륭히 일떠선데 이어 내포국집확장공사와 인풍원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서산거리를 사회주의선경거리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우리 당의 만년재보이며 백전백승의 무기인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강계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고

은천군 은혜리당위원회 일군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결사의 각오를 품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것이 바로 동지이고 동지애라고 쓰시였다.

회고록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일하고있는 일군들가운데는 은천군 은혜리당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에게는 인정미가 있어야 합니다.》

두해전 영농물자운반을 위해 길을 떠났던 농장 제18작업반 농장원 김정기동무가 뜻하지 않게 다리를 골절당했을 때였다.

병원을 찾았던 리당비서 정동순동무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의 생명을 담보하자면 어차피 다리를 잘라야 할것 같다는 의료일군들의 말을 듣게 되였던것이다.

그의 다리를 꼭 고칠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필요한 약재를 얻기 위하여 군에서 도에로, 도에서 평양으로 신발이 닳도록 오가던 생각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내렸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물러설수 없었다.

(그가 만약 내 친동생이라면 어떻게 하였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모대기던 그는 김동무를 맡아 치료하는 의료일군들의 팔을 부여잡고 안타깝게 호소하였다.

《제대군인으로서 늘 일밖에 모르던 동무입니다. 내 다리를 바쳐서라도 그를 완치시킬수는 없습니까.》

그의 말은 의료일군들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어놓았다. 그들은 평범한 한 농장원을 위하는 당일군의 불보다 뜨거운 진정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환자치료에 달라붙었다.

리당비서가 수술립회를 서는 속에 2차, 3차로 진행된 수술들을 통하여 드디여 기적이 일어나게 되였다.

생명의 위험을 넘긴 김동무는 그후 의료일군들의 정성과 당일군들의 뜨거운 인정미에 의하여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기의 일터에 다시 서게 되였다.

그 한사람만이 아니다. 사경에 처했던 10부락당비서 홍광빈동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된데도 리당위원회일군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있다.

대중을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는 일군은 사람타발을 하지 않는다. 품을 들이면 누구나 다 혁신자로 만들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며 이끌어주는 것은 이곳 리당위원회일군들에게서 찾아볼수 있는 장점이다.

농장원 최동무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인식이 그리 좋지 못할 때였다.

리당일군은 장점을 먼저 보고 그것을 적극 살려나가는 방향에서 그와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리당일군들은 불같은 그의 성격도 잘 살리도록 하면서 축구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그의 재능을 귀중히 여기고 마음껏 꽃피우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되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차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재능과 소질도 조직과 집단, 동지들속에서만 활짝 꽃펴나게 된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최동무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농장일에 몸을 푹 잠그었다. 그후 청년동맹초급일군이 된 그는 동맹원들을 이끌어 초급단체를 청년전위3중모범초급단체로 만들었다. 그는 이 나날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농장원들을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 리당위원회일군들의 뜨거운 동지애는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그들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대고조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청년들이 설 자리

원산사범대학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하고 맞이한 다음날 아침이였다.

대학정문으로 들어서던 원산사범대학 초급당비서 김경호동무는 손과 손에 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광장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사진이 모셔진 당보를 들고 격정을 토로하는 대학생들을 보게 되였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임무를 새삼스럽게 자각하였다. 청년대학생들의 가슴속에 끓고있는 지향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그날 대학에서는 초급당위원회가 열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길을 개척한 우리 혁명의 첫 세대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투쟁한것처럼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계기로 격동된 청년대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당면하여 《ㅌ. ㄷ》결성 84돐을 맞으며 이야기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학안에 독서열풍이 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에서 《라도제국주의동맹》에 대한 독보사업이 조직별로 진행되고 개별적으로도 그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였다.

며칠후부터는 일군들이 학부들에 내려가 청년대학생들속에서 우리 혁명의 자주의 기치를 마련한 《ㅌ. ㄷ》결성의 의의와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설담화를 진행하였다.

어느 한 학부에 내려간 대학당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ㅌ. ㄷ〉의 열혈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시원을 연 첫 세대였고 혁명의 태양을 받들어올린 위성들이였으며 수령의 위업을 어떻게 빛내여나가야 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준 조국의 참된 아들딸들이였습니다. 수령을 옹위하고 받드는 제일선, 바로 그 위치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동무들이 서야 할 곳이 어제날 혁명의 1세들이 섰던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당일군의 이야기에 청년대학생들이 너도나도 연단에 나서 열변을 토하였다. 우리 당, 선군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확신하며 마음속진정을 터놓는 그들의 목소리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실력전의 제1번수로 시대와 혁명이 준 성스러운 자리에서 청춘의 심장을 아낌없이 바칠 자각과 맹세로 불탔다.

본사기자 림현숙

세대의 자각

‖수 필‖

《ㅌ. ㄷ》결성 84돐을 맞이한 나에게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때의 환희와 열기가 생생하게 파도쳐온다.

얼마전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 취재갔다가 목격한 일로 더욱 그러했다.

이곳 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 돌아오자바람으로 실력전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며 말하였다고 한다.

《이번의 꿈같은 사변들을 돌이켜볼수록 우리 세대는 얼마나 행운에 넘친 세대입니까. 그런것만큼 열배, 백배로 더 분발해야 합니다. 쇠소리나는 실력가가 되여야 태양의 위성으로 참답게 빛을 뿌릴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준 충격은 대단히 컸다.

《ㅌ. ㄷ》결성 84돐이 다가오던무렵이여서 그랬는지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에서 《ㅌ. ㄷ》성원들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쓰신 구절들이 깊은 의미속에 떠올랐다.

《그 성원들로 보면 또 다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였다. 연설을 하라고 하면 연설을 하고 론문을 쓰라고 하면 론문을 쓰고 노래를 지으라고 하면 노래를 짓고 격술을 하라고 하면 격술도 할수 있는 끝끝한 재목들이였다. 지금말로 한다면 〈일당백〉, 〈일당천〉의 청년들이였다.》

력사는 《ㅌ. ㄷ》가 결성되던 화전의 언덕에서부터 멀리 전진하였지만 《ㅌ. ㄷ》성원들이 조선혁명사에 얼마나 거대한 자욱을 찍어왔는가를 뚜렷이 증견해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ㅌ. ㄷ》성원들은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말이나 구호로만 받들지 않았다. 그들은 수령이 바라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한껏 발휘하였으며 쟁쟁한 실력으로 군중정치사업과 무장대오확대 등 모든 일을 막히는것이 없이 해냈다.

격동적인 1970년대에 온 사회 주체사상화강령의 선포를 비롯한 세기적인 변혁들을 일으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매혹되여 노을이 피여나는 이른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라는 그리움과 충정의 노래를 절절히 부르던 일군들이 또한 그러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단 구상하시고 작전하신 문제이라면 몸이 열두쪼각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해내군 한 실천가, 실력가들이였기에 우리 장군님 오늘도 자주 추억하시는 오진우, 허담, 연형묵을 비롯한 **김정일**태양계의 참된 위성들…

실로 우리 혁명의 년대기들을 돌이켜볼수록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실력가들이 얼마나 무성한 숲을 이루었던가.

《ㅌ. ㄷ》성원들처럼 일당백으로!

이것이 어찌 성강의 당책임일군의 가슴에만 끓어넘치는 일념이겠는가.

이번의 뜻깊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 경축행사들을 통하여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더 깊이 절감하며 이 땅의 천만군민이 다시금 굳게 가다듬는 철석의 신념인것이다.

그래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이 땅의 모든 일터에서는 실력전이 벌어지고있다. 누구나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아아한 높이에서 질풍같이 달리는 기상으로 실력과 실천의 탑을 높이 쌓고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인 오늘 높은 실력이야말로 불세출의 위인들의 령도를 가장 고결한 충정으로 받들어나갈수 있는 열쇠라는것을 명심하고 미래를 설계해가는 천만군민의 열의속에 밝아오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얼마나 휘황찬란한것인가.

본사기자 리정수

《ㅌ. ㄷ》의 전통을 이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영원히 받들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만수대언덕에서— 본사기자 찍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개천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위대성을 당원들과 탄부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글이 실린 당보와 도서들을 학습하고 갱과 중대들에 나가 독보, 해설담화, 이야기모임 등의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당원들과 탄부들에게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일군들이 당원들과 탄부들속에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고있다.

초급당일군들의 뒤를 따라 탄광의 모든 일군들이 우리 당의 위대성을 칭송한 시와 노래, 글들을 가지고 노래보급, 시랑송발표모임, 해설담화, 독보 등을 널리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관심속에 방송선전차와 기동예술선동대를 통한 우리 당의 위대성선전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그리하여 탄광의 일터마다는 위대한 우리 당 어머니당을 석탄증산으로 받들어갈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는 당원들과 탄부들의 힘찬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순희

벼가을을 끝냈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전면적의 벼가을을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알곡증산으로 당을 받들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농장을 나라의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단위들에 당당히 내세워주시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고무된 농장의 전체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 특히 봄내여름내 애써 가꾼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가을걷이조직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빈틈없이 하였다.

강냉이가을과 가을밀, 보리심기를 최적기에 끝낸 농장에서는 모든 로력과 운반수단을 벼가을에 총동원하였다.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벼가을에 나선 농장원들은 그날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벼단묶기와 동가리치기를 동시에 따라세웠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농장일군들은 예견되는 날씨와 포전별, 필지별로 곡식이 익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벼가을을 힘있게 다그쳤다. 농장의 당일군들과 선동원들이 송풍기, 가속기가 되여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끌며 화선식정치사업을 맹렬하게 벌렸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 벼가을전투를 다그쳐 10월 9일까지 전면적의 벼가을을 끝냈다.

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낟알털기를 끝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질좋은 통신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평양통신기계공장에서— 김철우 찍음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발동하여

혜산신발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혜산신발공장에서 인민생활대고조의 해인 올해에 신발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생산도 현대화도 다같이 틀어쥐고 내밀면서 뜻깊은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인 기세로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공장들에서는 대중의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그들속에서 더 많은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이 나오게 하고 대중의 발기와 창안을 적극 지지하여주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경공업의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공장은 오늘처럼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지 못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이겨낸 공장이였지만 설비의 현대화가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여 활성화의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공장의 당책임일군으로 임명되여온 김명호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의 머리속에 번개치듯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옥같은 명언이였다.

(그렇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을 자자구구 심장에 새겨보자. 그러면 현대화의 실현방도도 반드시 찾게 될것이다.)

공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이런 결심을 더욱 굳혀나가던 책임일군은 어느날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의 현장을 찾았다. 그들은 신발바닥사출기를 놓고 한창 치렬한 론쟁을 벌리고있었다. 정보산업시대인 오늘날 이런 설비를 가지고 과연 생산을 계속 늘일수 있겠는가고 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이루고있었다. 그들의 의견들을 심중히 다 듣고나서 당책임일군은 말하였다.

—물론 현대화의 목표를 실현하여 하루빨리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겠다는 동무들의 심정은 충분히 리해된다. 하지만 지난날의 설비는 뒤전에 다 밀어놓고 새 출발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라에 손을 내민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 선군시대의 참된 주인공들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책임일군은 절절히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단위들만 보아도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일떠서지 않았는가. 그들은 남을 쳐다보지 않았다. 우리도 지금의 설비들에 대담하게 최첨단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러자면 무엇이 걸리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당일군의 저력있는 목소리는 돌격대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돌격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들은 지금 있는 사출기의 설비경력서를 놓고 기술개조의 처방을 내려보자, 그러자면 어떤어떤 전자요소들이 필요하겠는가, 압축기는 어떻게 개조하고 마모된 유압전자변들은 어떻게 되살려낼것인가, 또 콤퓨터자동조종체계를 받아들이자면 무슨 문제가 풀려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토론하면 반드시 그에 필요한 답이 나올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문제해결의 방도는 대중의 심장속에 있었다. 지배인 유영화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지난 시기 무심히 보아오던 사출기를 최첨단설비로 개조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였다. 기사장 리영호동무를 비롯한 기술일군들은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하나하나 걸린 고리를 찾아내고 그 실현방도를 세워나갔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할수 있는 실무적인 대책도 앞질러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과학자들이 현장에 직접 내려가 로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게 되였고 기술자, 기능공들이 수많은 전자요소들과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설비조립전투를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게 되였다. 물론 이 과정에 제기되는 난관도 많았고 때로는 리론과 실천이 결합되지 않아 안타까이 모대기며 맥을 놓는 때도 없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일군들은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어려운 기술혁신과제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공장의 실정에 맞게 사출설비의 CNC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공장의 구체적현실에 발을 붙이고 현대화를 다그치는것이 곧 나라에 보탬을 주는 실리가 큰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공장일군들이 이처럼 기술자, 기능공들이 누구나 현대화사업에서 한몫씩 맡아 수행하도록 믿어주고 적극 내세워주었고 또 기술혁신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면서 밑거름이 되여줌으로써 그들의 과학기술적성과는 눈에 띄게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재단종합작업반의 재단사입에서의 CNC화실현과 새로운 창붙임식운동신생산방법의 도입 등 지난날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것도 일단 마음만 먹으면 자체로 척척 받아들일수 있게 된것도 이곳 일군들이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중시하면서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생산과 과학기술을 옳게 결합해나간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이다.

올해초, 전기작업반 반장 전창권동무가 공장책임일군의 사무실에 불쑥 나타났다.

《새로 개발한 레드등을 받아들일 착상이 떠올라 달려왔습니다. 재봉기마다에 설치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를 믿고 과업을 주십시오.》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스스로 일감을 찾은 작업반원들의 소행을 두고 공장일군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드넓은 재봉직장의 현장에 의례히 많은 조명등을 켜야만 작업을 할수 있다던 종래의 관례를 완전히 깨고 재봉기마다에 레드등들을 달아주어 얻게 되는 실리는 자못 컸지만 이곳 일군들과 전기작업반원들은 그것을 평범한 일로 여기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스쳐지나지 않으시고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고 그처럼 높이 평가해주실 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장군님을 우러렀다.

지금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누구나 최첨단과학기술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더욱더 분발해나서고있다. 이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이름달아주신 량강도솜장화를 비롯하여 질좋은 수십종의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애써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화를 다그치고 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폭넓게 형상한 감명깊은 화폭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를 보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이번 전람회에는 만수대창작사, 조선인민군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 평양시미술창작사와 각 도미술창작사들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미술단체들에서 창작한 다양한 종류의 미술작품 400여점이 출품되였다.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65년의 자랑찬 력사를 감회깊이 추억하게 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충정의 세계를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시대의 산물이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가 진행되는 평양체육관은 련일 찾아오는 참관자들로 성황을 이루고있다. 조선화, 유화, 출판화, 보석화, 조각, 수공예 등 다양한 종류의 미술작품들은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에 드리는 온 나라 미술창작가들의 충정의 로력적선물로서 날로 발전하는 주체미술의 면모를 과시하였을뿐아니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더욱 성대하게 맞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화폭에 담은 작품들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창건해주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감동깊게 보여주는 뜻깊은 화폭들인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이번 전람회의 주화상의 하나인 조각 《당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우리 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한 성과작이다.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한없이 넓으신 도량, 조선혁명의 실천적요구에 맞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가장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당건설리론을 제시하신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등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훌륭한 조형적형상으로 집대성한 작품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65년전의 그날 우리 당을 창건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을 떠나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결코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우리 당을 이끌어오시는 나날에 한평생 인민을 찾고찾으시며 이 땅에 행복과 번영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게 하는 조선화들인 《모내기전투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과 《황철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유화 《포사격훈련을 보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의 영상을 보석화형식에 담은 작품들인 《오가산자연보호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과 《소사하의 아침》 등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이다.

특히 이번 전람회에서는 백두산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작품들을 기록적인 화폭으로 그대로 재현한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의 품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 종류적특성을 잘 살린것으로 하여 선군시대에 더 높은 단계에 들어선 수령형상미술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화의 활달하면서도 섬세한 선묘법, 힘있는 단붓질법 등의 능란한 활용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일반화한 조선화 《콩풍년든 중대를 찾으시여》, 무게있으면서도 밝은 색채속에 유화의 기법적특성을 뚜렷이 살린 유화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이번 전람회에서 참관자들의 커다란 인기를 끌고있다.

특히 해방후 우리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든 기관단총을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수여해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력사적사실을 예술적으로 재현한 주화상인 조선화 《새 조선의 첫 기관단총을 수여하시고》는 작품의 기념비적성격을 부각시키는 훌륭한 구성과 선묘법과 몰골법에 의한 인물들의 생동한 형상, 대담한 함축과 비약 등으로 조선화의 기법적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당창건과 더불어 새 조선건설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전람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다.

이번 전람회는 조선화 《태양을 우러러》, 수예 《그날을 못 잊어》, 조선화들인《입당청원서》, 《우리 당비서》, 《무성한 해바라기》 등과 같이 우리 당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대성과 천만군민의 충정의 세계를 반영한 작품들이 수많이 출품되여 이채를 돋구고있다.

유화 《봄의 노래》는 망국의 그 세월 지켜주고 이끌어줄 진정한 어머니품이 없어 지지리도 천대받고 멸시받던 우리 농민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비로소 해방의 기쁨, 땅의 주인된 환희를 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모습이 독특한 화면구성과 생동한 성격형상으로 하나의 통일된 색채속에 인상깊게 안겨오는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격조높이 구가하고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작품들인 조선화 《초소의 밤》, 유화들인 《단숨에》, 《폭풍전야》 등은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영원히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가 차넘치게 하고있다.

전람회에는 위대한 당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질풍같이 내달리는 시대의 벅찬 숨결이 고동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눈앞에 바라보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과 환희와 랑만을 담은 현실주제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였다.

특히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천하는 길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모습을 반영한 작품들이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고있다.

희천발전소건설과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반영한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현시기 당이 부르는 중요전투장들에 남먼저 달려나가 자신의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당에 대한 무한한 충정의 세계를 그대로 펼쳐보인것은 전람회의 큰 성과로 된다.

활달한 필치와 각이하면서도 생동한 인물형상 등으로 희천발전소건설에 온갖 지성을 아낌없이 바치며 떨쳐나선 자강도녀성들의 모습을 담은 유화 《희천의 녀인들》, 희천속도창조자들의 영웅적기상을 담은 유화 《희천발전소건설장》,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담은 유화 《미장경기》와 《더 높이》 등은 미술창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창작한 작품들인것으로 하여 시대의 숨결이 뜨겁게 고동치고있다.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나가는데서 당이 안겨준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 선군시대 미술창작가들의 혁명적열정과 투쟁기풍을 뜨겁게 안아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수령님의 유훈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감사의 정을 감동깊게 펼쳐보인 조선화들인 《수령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풍년든 목화포전》 등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비약이 창조되는 대고조시대의 격동적인 모습을 잘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성과작들이다.

조선화 《희천의 수리개들》앞에서 참관자들은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군 한다.

종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성속에 송전탑에 오른 영웅적위훈자들의 기상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대담한 함축과 비약의 수법으로 먹을 위주로 격이 높게 화폭을 펼친 작품은 조선화의 기법적특성을 잘 살린 성과작의 하나이다.

대형꽃병에 주체철이 생산되여나오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을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일반화한 도자기 《쇠물장식화병》도 특색있는 성과작이다.

이밖에도 전람회에는 독특한 색채적양상으로 이목을 끄는 《출근길》을 비롯한 유화들인 《변모된 내 고향》, 《사랑의 집》, 조선화들인 《은방울꽃향기》와 《웃음넘친 탈곡장》, 수예작품들인 《사과꽃 첫 향기》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첫 수확》등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눈앞에 바라보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인민의 모습을 밝고 아름다운 화폭에 담은 작품들이 수많이 출품되여 전람회장을 이채롭게 장식하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경축하여 개막된 이번 국가미술전람회는 주체미술의 화원을 더 아름답고 풍만하게 장식하였으며 수령복, 당복을 대를 이어 누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 천만군민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정 영 화

장편실화도서 《김일성화와 세계》 출판

장편실화도서 《김일성화와 세계》를 최근 공업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도서에는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태양의 꽃이 태여나게 된 경위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지성속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온 누리에 만발하고있는 사실이 감동깊게 서술되여있다.

도서는 《꽃에 대한 사랑》, 《김일성화의 탄생》, 《다함없는 칭송》, 《태양절을 맞으며》, 《누리에 만발하는 태양의 꽃》 등의 제목으로 구성되여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시고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세계혁명발전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상징으로 세상에 태여난 김일성화에 대하여 도서는 소개하고있다.

주체54(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새로 육종된 아름답고 진귀한 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하여 올린 사실을 통하여 도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세계저명한 인사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흠모심을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도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있은 정세의 파동으로 하여 일시 행적을 잃은 태양의 꽃을 찾도록 하신것을 비롯하여 김일성화가 세상에 다시 태여나 우리 조국땅에 뿌리내리기까지에 깃든 뜻깊은 사연을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세계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이 어린 김일성화를 누리에 활짝 피워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복이며 자랑이다.

도서에는 태양의 꽃과 더불어 위인칭송의 대하가 끝없이 흐르고있는 자료들도 편집되여있다.

장편실화도서 《김일성화와 세계》는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외무성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것과 관련하여 1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초청에 따라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관계와 6자회담재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 등 문제들을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였다.

우리는 6자회담재개에 준비되여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참가국들이 준비되여있지 않은 조건에서 서두르지 않고 인내성있게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리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만났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왕조국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최병관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륙호 제1서기를 비롯한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부위원장은 조선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뵈온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중조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이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올해 두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시여 호금도총서기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견해일치를 보시였다.

계속하여 그는 얼마전에 진행된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데 대해 그이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두 나라 청년조직과 청년들이 활발한 교류와 래왕을 통하여 중조친선을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것을 믿는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마쟈르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류르매르 쥴라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쟈르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는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길이 전하는 곳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만경대일가분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들이시다.

대표단은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당창건사적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평양시 교외에 있는 타조목장 등을 참관하였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중국방문 조선로동당 친선대표단 출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친선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16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로동당 친선대표단 베이징 도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친선대표단이 16일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류결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최병관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드높은 체육열의, 넘치는 혁명적랑만

룡흥광산에서

룡흥광산은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가운데서 남먼저 모범체육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만큼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대중체육활동은 빼놓을수 없는 하나의 생활로, 일터마다에 넘치는 혁명적정서와 랑만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군중문화사업과 군중체육활동을 적극 벌려 어디에 가나 흥성거리고 사람들이 혁명적락관과 신심에 넘쳐 일하고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광산에서는 체육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시기 이곳에 배치되여온 광산의 책임일군이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특별히 주목을 돌리게 된 문제가 바로 대중체육사업이였다.

명절때마다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림과 갱밖에서 일하는 종업원림사이의 배구경기를 하는것이 전부였고 그나마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도 몇몇 잘하는 사람들로 고정되여있었다.

일군은 이러한 실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대하지 않았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자자구구 되새길수록 결심은 확고해졌다.

당, 행정 및 근로단체일군들과 함께 집체적인 협의도 진행하면서 대중체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거리들을 찾아내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갔다.

이 과정에 처음으로 진행한것이 당일군들과 행정일군들사이의 배구경기였다. 많은 종업원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한겨울의 배구경기는 비록 수준은 높지 못했지만 실효는 좋았다. 경기에 참가하였던 일군들은 저저마다 체육사업에서 대중의 앞장에 설 결의를 다졌고 종업원들의 체육열의도 새로와졌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계기로 하여 광산적인 체육경기가 큰 규모에서 벌어지게 되였다. 광산의 실정에 맞게 꾸려진 8개 팀들이 경기들에 참가하였으며 종목도 보다 많은 종업원들이 참가할수 있게 다양하게 선정되였다.

체육경기라면 응당 잘하는 사람들만 참가하는것으로 생각했던 종업원들도 너도나도 뛰여들었다. 광산에서 이러한 체육경기들을 뜻깊은 명절들과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종업원들의 체육열의는 부쩍 높아졌다. 이전에는 광산적으로 두개밖에 없던 배구장이 여러 직장, 작업반 등 곳곳에 새로 꾸려졌다. 체육경기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족들까지 달려나와 자기들의 아버지와 아들, 딸 등을 응원하느라 온 광산이 들썩이군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최호동무를 비롯한 직맹일군들은 모범체육단위쟁취운동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체육열의를 더욱 높이였다.

이 나날에 체육을 잘하는 신명철, 신명국, 신명호 3형제가 책임성높은 초급일군들로 성장하였으며 체육에서는 《소학교 1학년생》이였던 많은 종업원들이 어느새 자기 팀의 선수로, 광산선수로 자랐고 군적인 체육경기에서 광산이 2년동안 련속 종합 1등을 쟁취한 자랑도 아름답게 엮어졌다.

드높은 체육열의속에 광산에는 혁명적정서와 랑만이 차넘쳤고 종업원들속에서는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 로동과 생활에 대한 사랑, 제힘에 대한 굳은 믿음과 래일에 대한 락관이 더욱 커졌으며 그로 하여 집단의 단결력도 강해졌다. 체육이 대중화, 생활화되니 종업원들의 걸음새부터 달라졌다는 광산일군들의 말이 인상적이다.

당의 대중체육정책의 생활력을 체험하면서 이곳 일군들은 더욱 절감했다.

문화혁명의 구성부분인 대중체육사업이야말로 대중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뿐아니라 그들의 정신력을 더욱 발동시키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라는것을.

혁명적정서와 랑만속에 들끓는 아름다운 생활과 투쟁은 광산의 더 밝은 래일을 자랑차게 펼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오 철 룡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넘쳐난다.
—만경대구역 축전1동 11인민반 전영범가정— 리진명 찍음

중국국가지적소유권총국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중국국가지적소유권총국대표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인 리옥광부총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는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르고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유서깊은 곳이다.

만경대고향집에서 탄생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항일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중국인민은 그이를 끝없이 경모하고있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시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우의탑 등을 참관하였다.

중국국가지적소유권총국대표단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세계통계의 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계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통계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요구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그것은 최근 시기 유엔이 나라와 지역들에서의 통계능력강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유엔은 나라들에서의 통계사업과 그 강화발전, 특히 개별적인 국가통계기관들과의 협력사업, 통계자료봉사의 발전, 자료수집과 관련한 표준적인 질문서의 제공, 통계자료의 분석과 보급, 통계방법론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다.

유엔은 최근 개별적인 나라들의 발전과 진보를 이룩하는데서 통계의 과학성과 시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계능력강화를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있으며 국제적수준에서 천년기개발목표의 달성정형을 평가하고 통계자료의 보장을 정책작성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적인 통계사업발전추이에 맞게 유엔기구들과의 련계밑에 2008년 인구일제조사와 여러차례에 걸치는 다지표조사, 녀성건강조사를 비롯한 표본선택조사들을 진행하였으며 천년기개발목표를 반영하는 통계지표들과 이 부분 통계능력강화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특히 중앙을 비롯하여 도, 시, 군통계기관들에서 일원화통계체계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며 통계의 과학성, 객관성, 시기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유엔에서는 2010년 10월 20일을 세계통계의 날로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기념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는 유엔성원국들과 유엔기구들, 기타 국제 및 지역기구들이 이날에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하여 통계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일데 대한 문제도 제시되여있다.

세계통계의 날을 여러 나라들에서 기념하게 됨으로써 믿음직하고 시기적절한 통계와 지표들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나라들의 통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통계의 날을 맞으며 중앙통계국의 주최로 강연회, 연구토론회 등 여러 기념행사들이 진행된다.

올해 10월 20일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계통계의 날이다.

중앙통계국 김 건 도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떠나갔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16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축하단을 전송하였다.

중국방문 조선친선참관단 출발

중국을 방문하는 조성결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친선참관단이 16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이 참관단을 전송하였다.

브라질자유조국당대표단 귀국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넬쏜 챠베스 두스 싼뚜스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자유조국당대표단이 16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을 방문하였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16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길철혁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와 학효비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해외동포축하단들이 떠나갔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리게라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축하단이 16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축하단을 전송하였다.

이에 앞서 선경석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축하단이 평양을 떠나갔다.

제6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 대표들 도착

제6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중국, 도이췰란드, 로씨야,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중국대북의 대표단, 대표들이 1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말레이시아, 이딸리아의 대표단들이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류다른 감격과 환희의 순간순간이 흘러가고있다.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위대한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민족자주위업승리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 회의장에 차고넘쳤던 격정이 겨레의 흉벽을 세차게 두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광장을 진감시킨 선군령장의 필승의 기상과 예지가 남녘멀리 다도해에 세찬 파도를 일으켰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온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서 새로운 신심과 락관이 용솟음치고있다.

남녘겨레들은 백전백승을 떨쳐온 조선로동당의 밀뿌리, 84년전 그날 압제의 비운을 밀어내며 활활 타올랐던 《ㅌ.ㄷ》의 기치에 대한 격정을 이렇게 터친다.

《ㅌ.ㄷ》의 결성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민족해방위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력사적인 선언이다.》

《ㅌ.ㄷ》의 기치는 오늘도 식민지피압박대중의 희망의 등대로 빛나고있다.》

《ㅌ.ㄷ》의 홰불로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아오신 김일성주석님께 최대의 영광드리자!》

…

새길수록 《ㅌ.ㄷ》는 위대한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혁명승리의 기치이다.

서울의 정치학교수 김진수는 학생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의 깊고도 억센 뿌리는 김일성주석님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반일애국사상과 혁명정신이 남달리 투철하시였던 주석님께서는 10대의 나이에 진보적청년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강령과 활동원칙, 당창건의 골간 등은 모두 여기서 시작된것이다.

정녕 〈ㅌ.ㄷ〉의 결성은 우리 민족사에서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 자기 운명을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참다운 변혁이 시작되고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출발점이 마련된 력사적사변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 그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으며 자주시대의 새 력사, 선군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력사적장거였다.

하기에 광주의 언론인 강석철은 《일찌기 〈ㅌ.ㄷ〉를 결성하시여 주체형의 당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장구한 혁명투쟁행정에서 조선로동당을 가장 위력하고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라고 소리높이 웨친것이다.

84년전 화전의 언덕에서 타오른 《ㅌ.ㄷ》의 홰불에 빛발쳤던 민족자주정신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혁명승리의 위대한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리념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온 민족이 우러르고 세계가 격찬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성, 그것은 조선로동당을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선군사상에 기초한 전당, 전군, 전민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력에 있는것이다.

하기에 《조선로동당과 김정일령도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해바라기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ㅌ.ㄷ〉가 내세운 반제자주리념을 철저히 구현한 권위있는 당이며 선군혁명단결로 강화발전하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김일성주석님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있는것은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장군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비범한 선군령도로 조선로동당을 필승불패의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 출중한 정치실력으로 〈ㅌ.ㄷ〉의 리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행운이며 영광이다.》

서울지역 대학교수들의 모임에서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를 펼쳐보이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그 뿌리를 항일혁명전통에 두고있는 당이며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ㅌ.ㄷ〉가 내세운 반제자주리념을 철저히 구현한 가장 존엄높고 권위있는 당이며 일심단결로 강화발전하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고있는 당이 사회주의위업을 위해 정확한 투쟁목표와 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민중을 옳바르게 령도할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ㅌ.ㄷ〉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실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잡지 《말》, 《신동아》를 비롯한 남조선의 출판보도물에도 《ㅌ.ㄷ》의 전통을 이어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남녘겨레의 흠모심이 반영된 글들이 실려 파문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 선군혁명의 위력한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는 가운데 백두회 회원들은 《〈ㅌ.ㄷ〉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로동당에 영광드린다.》, 《〈ㅌ.ㄷ〉와 선군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백승의 기상을 떨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모습에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 밝아올 통일의 새 아침을 확신한다.》라는 글이 씌여진 인쇄물을 곳곳에 배포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남녘겨레에게 신심을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선군의 빛발아래 자주통일, 민족번영의 래일에로 내닫는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조선로동당이 높이 추켜든 《ㅌ.ㄷ》의 기치가 힘차게 나붓길것이다.

본사기자 리효진

용납 못할 반공화국망발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우리와 계속 엇서고 끝까지 대결하려는 범죄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지난 14일 륙군참모총장 황의돈이라는자가 륙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라는데서 《주적》개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떠들던 끝에 우리의 당과 군대, 정권을 거들며 저들의 《분명한 주적》이니 뭐니 하는 망발을 줴치였다.

지금껏 남조선에서 《주적》망발이 터져나와 물의를 일으킨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자의 망발은 전례없는것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의식의 발로로서 우리 인민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악담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주되는 적》으로, 군사적공격의 대상으로 보는 《주적》론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고 북침전쟁도발을 전제로 한 반민족적인 대결전쟁론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그런데 황의돈역도는 이번에 대상까지 찍어서 《분명한 주적》이니 뭐니 하였으니 이자야말로 우리 인민이 용납할수 없는 최대의 적이고 민족의 원쑤가 아닐수 없다.

문제는 이자의 망발이 그 일개인의 의사로만 볼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남조선에서 이미 사라졌던 《주적》론이 현 당국의 출현후 다시 대두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군부의 일부에서는 문서에 그것을 쪼아박는 사태까지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현 《정권》이 우리에 대해 적의를 품은자들의 집단이며 대결과 전쟁을 꾀하는 반역무리라는것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보수패당은 집권후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련북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왔다. 최근에는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두고 그것이 《주적표현을 삭제한 결과》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륙군참모총장이라는자의 입에서 그런 악담이 쏟아져나온것이다.

사태는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대화》를 운운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북남대화와 화해, 협력, 통일을 요구하는 민심에 악랄하게 도전하면서 《주적》악몽에 사로잡혀있는자들때문에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고 통일의 길이 막히고있는것이다.

극도의 대결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보수패당의 《주적》소동이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응당하다.

호전광들의 《주적》소동은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 그것이 계속되는 경우 도발적인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외세와 함께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호전광들의 책동이 더욱 강화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대결광신자들이 동족과의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북침야망만을 추구하면서 《주적》소동과 같은 도발적행위를 계속한다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언제 가도 해소될수 없고 북남관계도 파국에서 벗어날수 없다.

지금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위해 대범하고 아량있게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하지만 보수패당이 대세에 역행하면서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그에 단호히 대처해나갈것이다.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민족을 등지고 대결의 길로 서슴없이 나아가는 반역무리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오직 수치스러운 파멸뿐이다.

허영민

6.15공동선언, 10.4선언리행을 주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6.15유럽지역위원회)가 9일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 10.4선언발표 3돐에 즈음하여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민족의 단결과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무엇때문에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위험한 전쟁직전에로 몰아가고있는가고 결의문은 반문하였다.

결의문은 민족의 통일지향을 가로막고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현 남조선《정부》를 규탄하였다.

외세공조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절대로 가져올수 없으며 불안과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것이라고 하면서 결의문은 현 남조선《정부》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은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결의문은 시대는 민족공조실현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민족공동의 선언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15유럽지역위원회가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배격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유럽의 평화인권단체들과 련대투쟁을 강화해나갈것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본의 력사적죄행 폭로

일본이 과거 을미사변을 도발하고 그 죄행을 덮어버리려 한 사실이 폭로되였다.

1893년부터 령사의 신분으로 서울에 주재하여 을미사변을 목격한 우찌다 사다즈찌의 《부임지 주요사건회고록》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 의하면 당시 궁내부고문이였던 오까모또의 제의에 따라 일본은 대원군을 사변에 끌어들임으로써 민비살해의 책임을 조선에 넘겨씌우려 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이 응하지 않자 일본살인마들은 그를 억지로 왕궁으로 끌어내고는 곧 저들의 참살계획을 현실로 옮겼다.

사변직후 필자가 민비참살로 매우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학살만행을 지휘한 공사 미우라는 《아니, 이로써 조선도 드디여 일본의것이 되였다.》고 떠벌였다.

필자가 《일본인이 피묻은 칼을 들고 대낮에 공공연히 경성(서울)거리를 걷고있는것을 조선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보았으니 일본인이 이 사변에 관계한것을 숨길수 없게 되였다.》고 불안해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하자 미우라는 《나도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때 일본공사관은 비밀을 엄수하기 위해 본국과의 통신을 차단시켰으며 참살계획을 실행한 후 《어제밤 왕궁에서 변이 있어 왕비의 행방을 알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면서 《표면적으로는 조선인이 왕비를 죽인것으로 되여있으나 실제는 기록한대로다.》고 썼다.

본사기자

통일애국의 길에 바쳐가는 보답의 마음

비전향장기수 김용수동지의 가정을 찾아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국가도서전람회장을 찾았던 우리는 많은 관람객들의 주의를 끌고있는 한 도서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세계유래상식사전》이라는 부피두터운 책이였다.

알고보니 비전향장기수 김용수동지가 주필자였다.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김용수동지의 가정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믿음과 사랑에는 충성과 의리가 따라야 한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김용수동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이 다 그러했지만 김용수동지 역시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조국의 품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신문배달로 겨우 소학교를 다닌 그는 공화국에서 김일성종합대학까지 졸업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공화국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는 고마운 어머니품이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채택이후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에로의 귀환을 앞두고 김용수동지의 생각은 깊었다.

(어머니조국에 어떻게 빈몸으로 돌아가겠는가. 맨몸인 나를 안아 대학공부를 시켜주고 교단에까지 세워준 어머니조국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한단 말인가.)

후대교육사업을 해온 그는 교육교양사업에 이바지하는것으로 조국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을 택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도서관과 책방들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친구의 집에 가는 경우에도 서가를 꼭 찾아보군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그는 조국의 품에 안길 때 한트렁크나 가져왔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집필을 허용하지 않았다.

27년간의 감옥살이후과로 김용수동지는 치명적인 심장병을 앓게 되였다. 사소한 정신육체적부담에 의해서도 심한 심장아픔과 숨차기, 부정맥이 나타나군 하였고 그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항시적으로 안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외국의 유능한 의료진까지 초청하여 그의 심장병을 고쳐줄데 대한 사랑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김용수동지는 남쪽에서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엄청난 자금이 드는 심장수술을 받고 소생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보내주신 갖가지 보약들은 그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여 그는 건강을 되찾고 영광과 행복속에 여생을 보내게 되였다. 생각할수록 가슴에 격정이 차넘쳤다.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나는 행운을 받아안은 김용수동지는 사랑을 받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는것을 의리로 간직한 그였다.

교단에 선 심정으로 김용수동지는 학생들의 외국어교육에 필요한 중어와 영어교재를 직접 집필하였다.

수개월간에 걸치는 집필의 나날 그의 방에는 밤에도 불이 꺼질줄 몰랐다.

이렇게 되여 그가 집필한 교재 《회화를 통한 중국어학습》과 《영어일상생활회화》가 나오게 되였다.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집필한 교재들을 보면서 매우 좋아하였다.

그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 그는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새로운 도서를 집필할 결심을 하였다.

어느날 김용수동지는 한 일군으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상식자료를 많이 주어 안목과 시야를 넓혀줄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셨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그는 즉시에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찾았으며 해당 출판사와의 련계밑에 사업에 착수하였다.

《세계유래상식사전》은 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충심으로 받들려는 통일애국투사 김용수동지의 깨끗한 마음에 떠받들려 나오게 되였다.

《세계유래상식사전》에 대한 수요가 높다. 어른, 학생 할것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요구하고있다.

《사실 저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난 몸이 아닙니까. 하늘같은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뿐인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으니 정말 황송합니다.

힘이 진할 때까지 우리 조국의 교육문화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소박하면서도 꾸밈이 없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조국의 귀중함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통일애국투사의 깨끗한 량심을 다시금 엿볼수 있었다.

이런 애국자들이 많아 내 조국이 흥하고 선군조선의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것 아닌가.

본사기자 김정옥

사경에 처한 두 군인을 위해 바친 40여일

평강군의 일군들과 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

지난 9월 19일 두명의 인민군군인이 평강군안의 일군들과 군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 읍지구 인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병원정문을 나섰다.

그들이 바로 화상을 입고 사경에 처하여 수십일동안 평강군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여 부대로 돌아가는 허명철, 윤인혁동무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계속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군대는 인민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으며 인민은 군대를 떠나서 자기의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민은 군대를 자기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난 8월 어느날 저녁이였다.

평강군인민병원으로 심한 화상을 입은 두명의 군인이 실려왔다. 특히 전신 50% 화상에 심한 동통성쇼크로 허명철동무는 거의나 의식이 없었다. 혈압도 맥박도 정상수치에서 멀리 벗어났다.

이미 생명이 경각에 이른 허명철동무를 살려낼수 있다는 담보는 없었다. 의료일군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환자들을 바라보고있을 때였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서는 한 일군이 있었다. 군당책임일군인 남궁복철동무였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환자들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그는 의료일군들에게 《허명철, 윤인혁동무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산 모범을 보여준 군인들입니다.》라고 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허명철, 윤인혁동무들이 맡은 군사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로 돌아오고있을 때였다.

마을주변을 가까이하던 그들은 어느 한 살림집에서 삼단같이 불길이 타래쳐오르는것을 보게 되였다.

지체없이 그곳으로 달려가 불속으로 서슴없이 뛰여든 그들이 백두산3대장군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왔을 때였다.

뜻밖에도 집안에서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허명철동무는 또다시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집안으로 뛰여들어가 자기의 군복을 벗어 어린애를 감싸안고 나왔다.

그리고는 다시 살림도구들을 건져낼 결심을 안고 불속으로 뛰여들었다. 그가 윤인혁동무와 함께 불붙는 집으로 뛰여들기를 그 몇번, 주변의 마을사람들이 달려왔을 때에는 이미 그들이 심한 화상으로 의식을 잃은 뒤였다. …

군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 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귀중한 전사들입니다. 이 병사들을 회복시켜 초소에 다시 세우는것이 곧 우리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받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군당책임일군의 절절한 이야기는 의료일군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우리의 피와 살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병사들을 소생시켜 초소에 다시 세우자.

이것이 의료일군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즉시 병원적인 의사협의회를 열고 환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전투를 벌리였다. 과장 박철근, 담당의사 조명철, 담당간호원 리송림, 리명금동무를 비롯한 외과의 모든 력량이 치료전투에 집중되였다. 온 병원이 환자의 소생을 위해 떨쳐나섰다.

일군들인 지창준, 배혁, 리창렬동무들이 치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즉시 풀어주었다.

군당책임일군은 수백리나 되는 먼곳에 달려가 환자치료에 좋은 오소리기름을 얻어왔고 군안의 일군들은 때없이 병원에 찾아와 환자들의 상태를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소생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여러날이 흘렀다. 드디여 허명철동무가 의식을 회복하였다.

힘겹게 눈을 뜨는 순간 허명철동무의 눈앞에는 낯모를 모습들이 비껴왔다.

한순간, 격정에 못 이겨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는 의사, 간호원들의 모습을 보며 허명철동무는 이렇게 절절하게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저를 다시 조국보위초소에 설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후날 병원을 찾은 우리에게 부피두터운 치료일지를 펼쳐보이며 외과 과장 박철근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치료과정에 제일 어려운 전투는 화상성독혈증치료였다.

당시 허명철동무의 체온은 40℃이상이였고 맥박과 호흡도 정상이 아니였다.

때없이 의식을 잃군 하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담당의사와 간호원은 잠시도 환자의 곁을 뜨지 않았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를 그 몇번, 의료일군들의 가슴은 환자를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높뛰고있었다.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한 병원의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 군인들의 구미에 맞는 갖가지 음식들과 귀한 약재들을 마련해온 평강군 일군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간호장 오영금동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였다. 병원에서는 피부이식수술을 의료일군들로 조용히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은 하나의 생각을 주고받고있었다. 두 군인을 무조건 소생시켜야 한다는 일념이였다.

오전 9시 수술준비를 갖추고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수술을 시작하려고 할 때였다.

뜻밖에도 수술실로 군당책임비서를 비롯한 군당위원회와 군급기관 일군들이 들어섰다.

얼마후에는 어느새 이 소식을 알았는지 평강군의 인민들이 물밀듯이 병원으로 들어섰다.

누군가가 의료일군들에게 불같은 《항의》를 들이댔다.

《그래 군안의 일군들과 의사들에게만 환자를 위해 자신을 바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의 친혈육입니다.》

—친혈육!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모두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는 병원 의료일군들의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꽉 차올랐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그날 밤늦도록 수백명의 사람들이 달려와 병원마당을 꽉 채웠다.

화상입은 두 군인에게 자기들의 피부를 이식해달라고 호소하던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인 오인남, 최광, 리경전동무들, 출장길에서 그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와 수술대에 오른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름모를 군안의 인민들…

진정 그 모습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품속에서 뜻도 마음도 같이하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감동깊은 화폭이였다.

참으로 그런 뜨거운 마음과 정성이 그대로 명약이 되여 허명철, 윤인혁동무들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조국보위초소에 설수 있었다.

특파기자 신천일

들을 열렬히 축하! —선교편직공장에서—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영예의 혁신자

신충혁 찍음

늘어나는 학위소유자들

영예의 붉은기 함흥제1중학교에서

영예의 붉은기 함흥제1중학교에는 학위소유자들이 많다.

그들중에는 한생을 후대교육사업에 묵묵히 바쳐가는 오랜 교육자들도 있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되는 젊은 교원들도 있다.

과학연구부서가 따로없는 보통교육부문 학교에서 많은 학위소유자들을 배출한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다.

이곳 교원들의 목표는 깊은 리론지식과 능란한 교수수법을 소유하여 학교와 도의 범위를 뛰여넘어 전국이 인정하는 쟁쟁한 실력가가 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교수지도교원 김형무동무는 교육년한이 오랜 교육자이다. 《수재의 벗》과 《물리련습》을 비롯하여 수십년간 그가 탐구하여 집필한 참고서와 교육방법들은 수없이 많다. 그에게는 두툼한 교육경험자료집이 있다.

수십년간 쌓은 교육경험들이 수록되여있는 자료집에는 학생들에게 난도높은 물리문제풀이를 쉽게 할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바친 그의 한생의 자욱자욱이 그대로 어려있다. 이것은 그대로 학위론문에 반영되여 김형무동무는 높은 실력가, 학위소유자로 자라났다.

언제인가 학위론문심의에서는 수학교재내용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을 서술한 학위론문이 교육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적이 있었다.

교원 김명일동무가 제출한 론문이였다. 그는 이 론문을 오랜 시일이 걸려서야 완성하였다. 물론 훨씬 앞당겨 학위론문을 발표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론문발표를 여러번 미루었다. 이 론문이 실지로 교육실천에 기여할수 있는가. 이런 높은 요구성을 자신에게 제기하며 김명일동무는 자질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론문집필기간 8건에 달하는 교육방법소론문이 완성되고 국제경연에도 당당히 나설수 있게 키운 실력있는 학생들은 수없이 많다.

1급교원이며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인 리선숙동무를 비롯하여 많은 교원들이 사색과 정열을 기울여 새롭고 참신한 교육방법의 소유자, 학위소유자들로 자라났다.

교장 강윤수동무는 학교의 전반사업을 돌보는 바쁜 속에서도 15건의 교육방법소론문과 4건의 참고서들을 집필한 학위소유자이며 부교장 요세헌동무도 여러건의 교육방법들을 탐구한 새 교수방법등록증,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소유자이다.

학교일군들의 이러한 실천적모범은 교정에 차넘치는 학위론문집필분위기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사업을 방법론있게 잘 짜고들어 교원들의 드높은 열의가 응당한 결실을 보게 하고있다.

교원들을 대학박사원들에 입학시켜 높은 실력을 쌓게 하는것과 함께 교수경연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모든 교원들이 해마다 1건이상의 참신한 교육방법들을 탐구하게 하고있다.

교수참관의 질을 높이고 보여주기수업, 교수합평회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여 교원들이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면서 높은 실적을 쌓게 하고있다.

교정에 끓어번지는 학위소유의 열풍속에 여러명의 교원들이 학위론문집필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본사기자 리은남

독자의 편지

당의 품속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고있는 사람들가운데는 사리원시 대성소학교 교원 박정숙동무도 있습니다.

그는 10여년세월 제가 건강한 몸으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뜨거운 지성을 바쳐오고있습니다. 저의 집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예술소품공연도 보여주고 또 조국보위교양에 좋은 위훈담도 들려달라고 하면서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고 웃음을 안겨주군 합니다.

저는 앞가슴에 금별메달을 번쩍이는 영웅도 아니고 또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흙 한삽도 변변히 뜨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사는 평범한 영예군인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진정을 바쳐가는 박정숙동무를 대할 때마다 눈굽이 젖어들군 합니다.

언제인가 제가 뜻밖에 쓰러졌던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제곁에는 박정숙동무가 있었습니다.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자식들을 대신한다면서 며칠밤을 새워가며 저를 간호해주었다는것을 알았을 때 저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정부인의 몸으로 교육사업에 전심하면서도 며칠이나 밤길을 걸으며 저의 건강을 위해 애를 썼다니 친자식인들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이런 나날속에서 저의 가슴속에는 친혈육의 정이 흘러들어 의례히 명절날이 오면 자식보다 그가 먼저 기다려지는것을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 내세워준 우리 당에 고마움의 큰 절을 올리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모두가 한가정, 한식솔이 되여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사리원시 대성동 81인민반 리호원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

신문들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와 이란신문이 특집하였다.

메히꼬신문 《우니다드 나씨오날》 9월 30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창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한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로동당이 국제사회에서 강철의 당, 불패의 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김일성주석의 당창건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세대 혁명가들로 참다운 전위조직인 《ㅌ.ㄷ》를 결성하시고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과 조건에 맞는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당창건준비사업을 밀고나가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조선로동당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새 사회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킨데 대하여 서술하고 신문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의 위용과 더불어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얼마전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가 위대한 장군님을 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데 대하여 전하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의 당창건위업을 빛내여나가시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신다, 그이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3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환호하는 열병대오에 답례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또다시 추대되신 김정일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라는 표제밑에 옹근 한면에 특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김정일각하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신문은 우리 당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력사의 모진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을뿐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전환기까지 펼쳐놓았으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된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신문은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사진들을 함께 실었다.

담화 발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파우떼 목 아메스꾸아 드로문도가 9월 2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후 지난 65성상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향도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과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에서 미국에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참패를 안기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지난 세기 말엽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을 기화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가 조선에 총집중됨으로써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시련이 닥쳐왔지만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전군, 전국, 전민을 사회주의수호전에로 불러일으켰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를 지켜냈을뿐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까지 마련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조선은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실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65성상은 인민을 이끌어 세기적변혁을 창조해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다.

메히꼬사회주의인민당의 전체 당원들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기수인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그이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본사기자

시대착오적인 망동

미공화당패거리들이 우리의 《군사적위협》을 걸고 군비확장, 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미공화당이 오는 11월 2일에 진행될 미국회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이라는데서 그러한 기도를 뻐젓이 드러내놓았다. 공화당은 《공약》에서 우리 나라와 이란 등의 《미싸일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힘쓸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적대세력》들의 《미싸일위협》이 더욱더 현실화되여가는데 비해 미국의 미싸일방위정책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추진되고있다고 현실을 심히 외곡하였다. 여기에는 미공화당패거리들의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현재 미공화당은 야당으로 밀려난 처지에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민주당을 누르고 백악관을 타고앉으려는것이 공화당의 야심이다. 얼마 안있어 있게 될 미국회중간선거는 공화당에 있어서 그 중간다리로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할수 있다.

국회 상원과 하원에서 의석수가 민주당에 뒤지고있는 공화당은 국회중간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선거분위기를 역전시켜 득세하려 하고있다. 이에 있어서 공화당에 절실히 필요한것은 자금이다. 선거자들을 유혹하여 저들에게 지지표를 던지도록 만들자는것이 공화당의 타산이다. 이를 위해 공화당패거리들이 내든 구호가 그 누구의 허구적인 《군사적위협》타령이다. 즉 우리 나라와 이란 등 나라들의 그 무슨 《군사적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보》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것》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한테서 더 많은 자금을 긁어들이자는것이다.

테로공포증에 사로잡혀있는 미국민들의 심리를 리용한 교활한 술책이다.

공화당패거리들은 국민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긁어모아 선거자금으로 써먹는 한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다그치는 등 전세계를 군비경쟁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으려는 무서운 흉계를 꾸미고있다. 이번에 공화당이 내놓은 《공약》의 골자가 그것이다.

공화당이 《위협세력》으로 몰아대고있는 나라들은 신통히도 미국의 침략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있는 나라들이다.

미호전세력들은 조선반도를 대아시아전략실현의 전략적요충지로 보고 어떻게 하나 전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수십년간 대조선압살책동을 언제 한번 중단한적이 없다. 그들의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위험한 계선으로 치닫고있다.

지난 3월에도 미제는 남조선을 부추겨 함선침몰사건을 날조하고는 그 책임을 터무니없이 우리에게 넘겨씌우면서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련이어 강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은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미공화당이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며 군비경쟁을 불러오는것은 전쟁에 환장한자들의 발작증이다.

그러나 미공화당패거리들은 오산하고있다.

시대는 달라지고 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였다. 미호전광들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목이 쉬도록 고아대지만 그것으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대조선압살야망을 실현하려고 요동치는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군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며 저들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재촉하는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를 어째보려는 미공화당패거리들의 어리석은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백문규

기적을 창조하며 전진하는 강국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의 글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제37호는 1면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환영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앞두고 조선로동당원들이 전체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벗들은 물론이고 지어 적들까지도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21세기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세계적인 위대한 정치활동가이시라는것을 인정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계속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1964년 6월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활동에서 인민적이며 주체적인 사업방법을 구현해오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시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들어 강조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고 사회주의의 사상리론적기초를 풍부히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사회주의원쑤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어댈 때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내고 기적을 창조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조국통일위업수행과 외교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전환을 이룩하시였다. 최근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분쇄하고 나라의 대외적지위를 확고히 다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세계에서 가장 전투력있는 군대로 강화발전되였다. 현대적인 군사기술장비들로 무장한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힘은 더욱 강해졌으며 모든 군인들은 일당백으로 준비되였다.

신문은 끝으로 위대한 장군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세계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 단죄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수십년간 감행되고있는 꾸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상업, 금융봉쇄책동은 이 나라를 고립시키기 위한 부당한것으로서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지금 미국의 반꾸바봉쇄조치를 끝장낼것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볼리비아정부는 앞으로 유엔총회에 제기될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을 배격하는 결의안을 적극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간섭 배격

레바논대통령 미쉘 쑬레이만이 4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이 앞으로 있게 될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의 레바논방문에 항의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부당한 내정간섭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레바논은 자주적인 국가이라고 강조하고 이스라엘당국이 자기 나라의 일에 참견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언명하였다.

적들의 제재책동 규탄

이란 제1부대통령 모함마드 레자 라히미가 9월 30일 한 담화석상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적들의 제재책동을 규탄, 배격하였다.

그는 적들이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온갖 제재조치를 실시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이란인민의 의지를 더 굳세게 해주었으며 결국 제재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란에서 이룩되고있는 커다란 성과들은 적들에게 심리적타격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자기 나라 인민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더 높은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지하철도 건설, 경제 발전

중국 상해시에서 교통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까지 지하철도 총연장길이를 600㎞이상으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공사를 계속 다그치고있다. 현재 시의 지하철도길이는 400여㎞이다. 한편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에서 지난해 경제가 그 전해에 비해 13.9% 장성하였다. 이로써 자치구에서는 지난 8년동안 련속 10%이상의 경제장성률이 기록되였다.

협조

꾸바와 베네수엘라가 최근 두 나라를 련결하는 길이 530㎞의 해저까벨부설공사를 2011년 7월에 완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란과 벨라루씨는 7일 무역, 에네르기 등 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마약반대투쟁

파키스탄에서 마약반대투쟁에 힘을 넣고있다. 9일 이 나라 세관당국은 카라치에서 마약밀수행위를 적발하고 225㎏의 마약을 압수하였다.

본사기자

뎅구열피해

말레이시아에서 뎅구열이 계속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최근 이 나라 보건성은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만 7 419명의 뎅구열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117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의 살인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6일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들이밀어 2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그리하여 5명의 무고한 주민이 살해되였다. 또한 10일에도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또 들이밀어 2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여 7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였다.

항의시위

프랑스의 전국각지에서 12일 당국의 그릇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로조단체들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시위들에는 350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처지를 악화시키게 될 개혁조치를 당장 철회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위로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조선중앙통신】

벌리는 에스빠냐근로자들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로동조건개선과 임금

제2차 아랍-아프리카수뇌자회의 진행

제2차 아랍—아프리카수뇌자회의가 10일 리비아의 씨르트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60여개의 아랍 및 아프리카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하부구조건설과 식량안전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아랍—아프리카동반자관계전략과 2011—2016년 공동행동계획을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아랍—아프리카공동기금을 창설하기로 하였으며 일련의 협조문건들에 조인하였다.

회의끝에 호상협조를 발전시키며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할데 대한 아랍 및 아프리카나라들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씨르트선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진

인도네시아의 북부말루꾸주에서 8일 리히터척도로 6.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주의 떼르나떼로부터 동북쪽으로 225㎞ 떨어진 곳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활발해지는 태양에네르기개발사업

오늘 세계적으로 에네르기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가운데 태양에네르기를 대대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달성한 과학기술성과에 의거하면 사하라사막의 30만㎢ 면적에서만도 전세계가 1년간 소비할수 있는 태양에네르기를 충분히 얻어낼수 있다 한다.

국제에네르기기구는 2050년에 가서 태양에네르기가 세계전력생산량의 4분의 1을 감당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에네르기기술발전추세에 따라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태양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남아프리카대통령 쟈코브 게들레이홀레키사 주마는 태양에네르기를 기본으로 하는 새 에네르기자원을 개발리용하여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나라의 에네르기소비구조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새 에네르기자원개발리용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작성할것이라고 밝혔다.

전력의 80%를 석탄에 의거하여 생산하고있는 이 나라에서는 2014년까지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한 새로운 물가열장치를 100만개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공사가 완공되면 전통적인 에네르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 부족되는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이산화탄소방출량도 효과적으로 억제할수 있게 된다.

요르단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2012년말까지 마안주의 200만㎡의 면적에 발전능력이 총 10만kW에 달하는 태양에네르기발전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추진되고있다.

인디아정부는 2013년까지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년간 발전능력을 100만kW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으며 필리핀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능력을 현재의 2배로 높일 목표밑에 태양에네르기 등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에찌오피아에서는 홍해도에 건설된 발전능력이 14만kW에 달하는 태양열발전소운영을 잘하여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잠비아에서는 에네르기개발을 위한 계획에 따라 올해 7개 주에 태양열발전소들을 건설하게 되며 마로끄에서는 2020년까지 5개의 태양열발전소를 더 일떠세워 나라의 전력생산량을 38%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모잠비끄에서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하여 농촌지역의 전기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 한 고리로 인함바네주와 쏘팔라주에 있는 농촌마을들에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설비 2 500개가 설치되고 600여개의 학교와 진료소들에 태양전지판이 도입되였다.

지구상에서 원유, 석탄 등 화석연료자원이 점차 고갈되여가고있는 조건에서 태양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응당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부당한 제재놀음에 강경히 맞서

최근 미국이 인민페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낮게 평가되여있어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부당한 리득》을 보고있다고 중국을 비난해나섬으로써 중미사이의 마찰이 보다 표면화되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상원의 한 분과위원회소속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재무장관에게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다그어댔다. 그들은 중국인민페의 평가인하가 미국경제에 손해를 주고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요인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미국이 《행동할 때가 왔다.》는 소리까지 하였다.

미지배층이 국내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마치도 남에게 있다는 식의 론리를 펴는것을 보면 몹시 바빠맞은 모양이다. 청문회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경제회복추이가 보이지 않고있는데도 정부가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재무장관이 국회의원들의 맹렬한 비난에 직면하여 비지땀을 흘리였을것은 뻔하다.

재무장관은 현재의 경제형편이 심각하다는데 대해 동감한다고 하면서 정부도 그것을 우려하고있다는 식으로 그들을 달래였다. 그는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독자적 혹은 다자간 접근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중국이 보다 신속히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사업조건을 공평하게 만드는것도 정부의 핵심사안이라느니, 현재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안고있는 무역불균형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꼭같이 체험하고있는것이라느니, 미국이 무역불균형문제를 보다 효과적인 국제현안으로 만들게 되면 중국의 태도변화를 추동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을것이라느니 뭐니 하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막무가내로 재무장관을 몰아댔다. 청문회장은 말그대로 란장판이 되였다.

최근년간 미국에서 정부가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주택시장에서 혼란이 조성되고 거기에 자금을 투자했던 대규모은행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금융위기와 함께 경제위기가 터졌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금융지원을 통한 경기부양대책을 세웠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은을 내지 못하고있다. 게다가 승산이 보이지 않는 《반테로전》에 흘러들어가는 막대한 액수의 자금도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있다.

이렇게 되자 조급해난 미국은 중국의 통화정책을 문제시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인민페환률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 대응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위협해나섰다. 한마디로 중국이 미국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환률조정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일방적인 리해관계를 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중국에 먹어들어갈리 만무하다.

관측통들은 미국경제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중국은 더욱 강력해지고있다는 위구심이 미국인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에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인민페에 의한 결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로 하여 전통적인 딸라결제지역들에서 중국의 인민페가 무역결제통화로 쓰이게 되였다.

한편 중국인민은행 (중앙은행)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벨라루씨, 인도네시아, 아르헨띠나 등 여러 나라 및 지역과 6 500억RMB.Y규모의 화페호상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인민페의 국제적인 사용량과 포괄범위를 늘일수 있게 하였다. 그후 인민페의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욱 본격화되였다. 그것이 미국에는 마뜩지 않은 모양이다.

최근시기 미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중국상품들에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하고있어 중미사이의 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지난 8월말 미상무성은 중국의 일부 알루미니움생산업체들의 상품에 대해 새로운 보상관세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자국에 수출된 5억US$이상의 중국산 알루미니움제품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되였다고 하면서 거기에 1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의 일부 기업체들은 중국기업들이 인민페의 환률이 낮은 유리한 점을 리용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해나섰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지난 9월 26일 중국상무부는 미국산 구이용닭고기의 헐값판매로 중국의 국내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미국산 닭고기의 일부 품목에 대해 105%이상의 반투매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제품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기른 구이용닭고기에 3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중미무역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얼마전 중국의 온가보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기업, 금융, 학술계 인물들과 만났다. 여기에서 온가보총리는 중미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는 자국이 추구하는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자국정부가 인위적으로 인민페환률을 낮게 유지하지 않고있으며 국제금융위기이래 안정된 환률을 계속 유지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민페의 가치를 크게 평가인상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주요원인은 인민페환률에 있는것이 아니라 두 나라 무역 및 투자구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론들은 최근년간 중국이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국내시장을 기초로 인민페를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있는것이 국제기축통화로서의 딸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하는 미국의 리해관계에 저촉되여 쌍방사이의 대립이 초래되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를 둘러싼 중미마찰이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것이라고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조택범

세계알곡시장 형편악화

최근 세계알곡시장형편이 급격히 악화되여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9일 영국신문 《파이낸셜타임스》는 주요알곡생산국들에서 큰물과 가물 등으로 많은 알곡손실을 본것으로 하여 예상수확고를 대폭 낮추어 발표한데 대해 전하였다.

이에 반응하여 세계알곡시장들에서 식량가격이 뛰여오르고있다고 하면서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지금 알곡시장들에서 새로운 식량위기가 박두하고있는데 대한 공포감이 나돌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일자리 축감

일본의 오끼전기공업회사가 8일 경영형편악화를 구실로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기업체에서 약 1 000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당하게 된다.

총기류범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8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정체불명의 무장한 범죄자가 한 학교에 뛰여들어 학생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잡는 격

얼마전 미국의 자유유럽방송국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소형라지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지 주민들이 소형라지오를 통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추진하고있는 《민주화과정》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보건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혼쌀이 나도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다. 오죽하면 미국이 침략자, 강점자에 대한 증오로 가슴끓이는 아프가니스탄인민들의 손에 소형라지오까지 쥐여주어 감정변화를 일으키려는 《기발한 착상》을 했겠는가.

문제는 거액의 자금을 들여 구입한 소형라지오들이 과연 미국이 바라는대로 은을 내겠는가 하는것이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말하면 9년전에 미국이 《반테로전》의 구호를 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공한다고 휜소리치며 침략의 피묻은 군화발을 들여놓은 곳이다. 그때부터 이 나라는 살인과 파괴, 략탈의 란무장으로, 무시무시한 공포지대로 화하였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사람들은 미국이 념불처럼 외워대는 《민주화과정》이니, 《테로방지》니 하는 타령들이 저들의 침략과 강점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미사려구에 불과하다는것을 뼈에 새기고있다. 이런 판에 억만금을 들여 소형라지오들을 들이밀어도 피에 절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반동성을 미화하고 현지주민들의 반미감정을 변화시킬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잡는 격이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아프가니스탄의 민심을 달랠수 없다.

상책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루빨리 손을 떼는것이다.

배금희

ㄱ-01189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